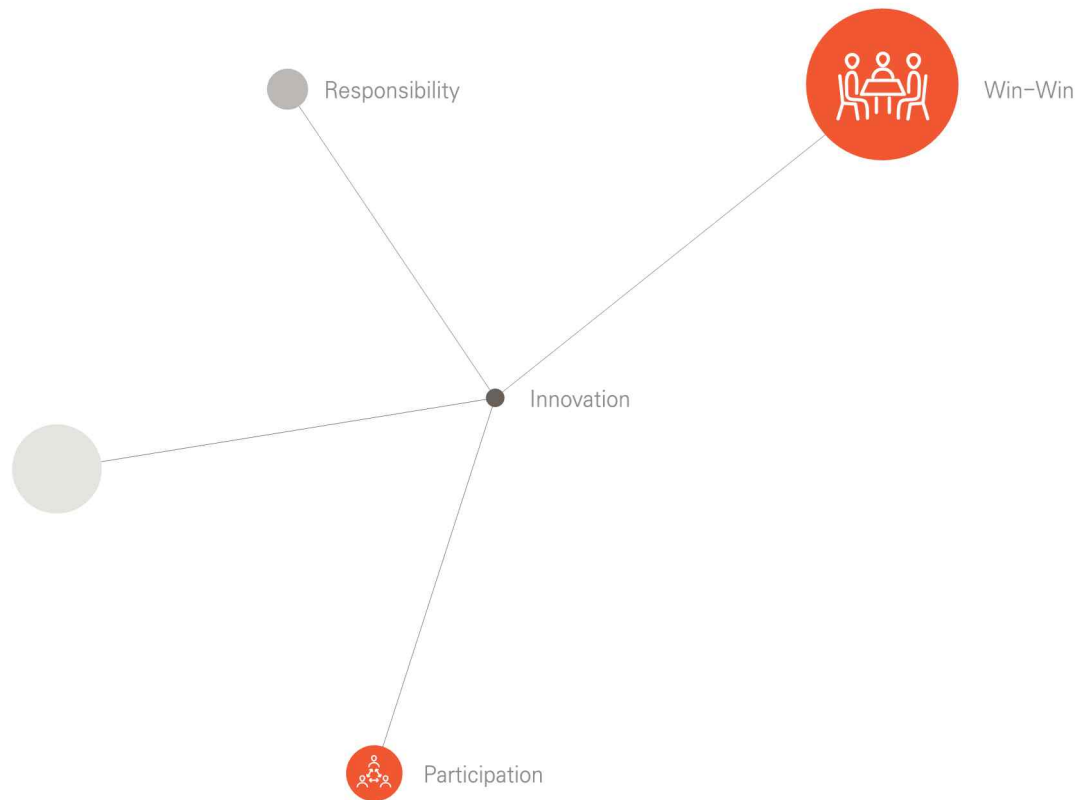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12월



목 차

1. 스페셜 이슈	3
2. 해외시장 동향	13
3. 국내시장 동향	20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스페셜 이슈

1. American Express: 2023 국제회의·행사 업계 전망

가. American Express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는 1850년 설립된 미국계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등 금융업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설립 초기부터 약 130여년간 여행자수표 사업을 운영, 세계적으로 여행자수표를 독점 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여행자, 기업여행, 여행자보험 등 여행·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Travel + Leisure〉, 〈Food & Wine〉, 〈Departures Magazine〉, 〈Executive Travel〉 등 여행 및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잡지 출판에도 관여하고 있음

1) 2023년 국제회의·행사 업계 전망 보고서(2023 Global Meetings & Events Forecast)¹⁾

- 국제회의·행사 업계 전망 보고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연례 보고서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업 운영에 있어 장기간 쌓여온 관련업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5개 대륙 23개 국가에서 580여 명의 전문가를 선정하고 해당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범위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업계 전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됨
- 2023년 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업계 현황(Global Activities), 글로벌 업계 트렌드(Global Trends), 지역별 트렌드(Regional Trends) 등으로 구성됨

2) 주요내용 요약

<표 1> 2023 국제회의·행사 산업 전망 주요내용 요약

오대주제	세부 주제	주요 내용
글로벌 업계 전망	활성화 전망	2023년 업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7%
	개최형태 전망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대면-하이브리드-버추얼 순의 선호도를 보임
	참가자 당 비용	임금 상승, 식음료비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참가자 1인당 투입되는 비용 증가
글로벌 트렌드	재택근무	재택-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운영 중인 기관 비율은 40%, 완전 재택근무 기관은 8%
	개최지 선정요인	개최 행사의 특정 기준 만족 / 참석자 교통편의 / 하이브리드 행사 인프라 등을 선호
	지속가능성 & DEI	국제회의 개최 시 지속가능성 고려 비율은 80% 이상, DEI 트렌드 반영 비율은 87%
지역별 트렌드	북미 지역	전년 대비 숙박비 및 항공료 인상비율이 모든 지역 중 가장 높음(숙박 7.4%, 항공 7.8%)
	아·태 지역	대면 행사 개최 시 소요되는 1인당 비용이 모든 지역 중 가장 높음(1인당 711달러)
	유럽 지역	탄소발자국 추적관리 활동 실시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음(탄소통계 작성률 28%)
	남미 지역	참가자 수 증가 폭이 모든 지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증가율 5.08%~5.88%)

1) 본 고는 '2023 Global Meetings & Events Forecast'(American Express, 2022)를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나. 부문별 전망

1) 글로벌 업계 전망(Global Activity)

■ 국제회의 산업 활성화 전망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22년 국제회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10점 척도 기준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점수를 매기는 질문에서 긍정적(8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7%로 나타남
- 특히 대면 미팅 개최가 활성화되면서 국제회의 개최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활성화 상태가 되었다가 2024년이 되어서야 일상적인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실제로 대면 미팅 개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행사 개최 예산을 자체 규정보다 과도하게 기획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들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규모 국제회의 개최 예정 건수가 이미 2019년 실적을 초과할 정도로 활성화 현상이 폭발적임

Level of Optimism

Percent of respondents

The majority of meeting professionals globally are optimistic about the health of the meetings and events industry in 2023 –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where 90% of respondents rated themselves an 8 or higher on a scale of 1 to 10.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1- Very Discouraged	0%	0%	0%	0%
2	0%	0%	1%	0%
3 - Discouraged	0%	1%	0%	2%
4	1%	1%	0%	4%
5 – Neither discouraged nor optimistic	2%	3%	0%	4%
6	8%	4%	3%	3%
7 - Optimistic	17%	17%	7%	12%
8	33%	40%	25%	33%
9	16%	18%	29%	19%
10 - Very Optimistic	23%	17%	36%	22%
8 to 10	72%	75%	90%	74%

[그림 1] 2023년 업계 활성화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

■ 개최형태 전망

- 한편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이 ‘버추얼에 질린(Virtual Fatigue)’ 상태이며 기존의 1순위 옵션이었던 하이브리드 방식의 입지를 대면 행사가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2023년 개최 예정 회의·행사 중 하이브리드 개최 비중은 아시아태평양(47%), 남미(41%), 유럽(33%), 북미(28%) 순으로 나타나 아태 지역 및 남미 지역에서는 아직 하이브리드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북미 및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보다 대면 행사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Meeting Format

Percent of meetings

North America leads the regions in the percentage of in-person meetings and events predicted for 2023; Asia Pacific respondents have the highest expected percentage of virtual meetings.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In-Person only	61.63	53.04	48.63	37.08
Hybrid (virtual attendees and in-person attendees)	18.66	20.91	24.54	25.36
Hybrid Multi-Hub (two or more in-person meetings connected via a virtual platform)	9.68	12.37	16.20	21.76
Virtual-only	10.04	13.68	10.63	15.81

[그림 2] 행사 유형별 개최형태 전망

- 또한 전문가들은 회의·행사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 개최건수 증가 폭이 다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대면 행사의 경우 컨퍼런스나 무역전(3.3%), 스몰미팅 및 단순 회의(4.2%) 등이 대표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모든 행사 유형에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되나 하이브리드 및 버추얼 행사의 경우 신제품 공개 행사(0.2%), 고객상담회(1.6%)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사 유형에서 개최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In-Person Meeting Frequency

2023 vs. 2022

All meeting typ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person in 2023, when compared to 2022.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Internal Team Meeting/Training	4.62%	4.11%	4.29%	2.36%
Product Launch (Internal/External)	3.74%	3.39%	3.51%	2.61%
Conference/Tradeshows	3.62%	3.73%	2.63%	3.02%
Senior Leadership Meeting/Board Meeting	4.34%	4.32%	3.88%	2.92%
Client/Customer Advisory Board	4.60%	4.13%	4.83%	2.81%
Incentive/Special Event	4.01%	3.89%	4.37%	2.53%
Small/Simple Meetings	4.72%	4.65%	4.30%	3.19%

Virtual and Hybrid Meeting Frequency

2023 vs. 2022

North American and European respondents are prioritizing in-person meetings so expect a decrease in virtual and hybrid for most meeting type. Asia Pacific expects increases across the board for virtual and hybrid meeting formats, ranging from 1.3% to 2.9%.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Internal Team Meeting/Training	-0.15%	0.51%	-0.02%	2.21%
Product Launch (Internal/External)	-0.92%	-0.51%	0.91%	1.32%
Conference/Tradeshows	-0.45%	-0.19%	0.37%	1.63%
Senior Leadership Meeting/Board Meeting	-0.73%	0.52%	1.60%	2.40%
Client/Customer Advisory Board	0.40%	0.76%	2.53%	2.90%
Incentive/Special Event	-0.39%	0.41%	1.03%	1.87%
Small/Simple Meetings	0.50%	1.10%	1.99%	2.63%

[그림 3] 행사 유형별 개최형태 전망(좌: 대면 행사, 우: 버추얼 · 하이브리드 행사)

■ 국제회의의 소비 전망

- 전문가들은 2023년 평균 국제회의 소비액이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모든 지역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자가 소비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소비액이 6%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 36%에 달해 남미(31%), 아시아태평양(23%)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verall Meeting Spend

Percent of respondents

Approximately two-thirds of respondents expect their overall meeting spend to increase in 2023; 12% of respondents in both North America and Europe predict a significant increase of 11% or more.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GLOBAL HOTELIERS
Significantly Decreasing (11%+)	1%	3%	3%	2%	8%
Decreasing (6%-10%)	9%	8%	7%	4%	14%
Slightly Decreasing (1%-5%)	7%	9%	12%	10%	16%
Staying the same	19%	15%	16%	17%	12%
Slightly Increasing (1%-5%)	25%	30%	32%	44%	24%
Increasing (6%-10%)	28%	24%	23%	17%	16%
Significantly Increasing (11%+)	12%	12%	8%	6%	8%

[그림 4] 지역별 국제회의의 소비액 증감 전망

- 한편 각 지역별로 방문객 1인을 1일간 유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한 결과, 북미 지역은 1인·1박 당 841달러, 유럽 지역은 819달러, 남미 지역은 854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898달러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태평양 개최 시 주최자가 부담하는 유치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입국규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MICE 활동이 덜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시료됨

Total Cost per Attendee

US dollars

Incentives and special events are expected to have the highest cost per attendee in every region except Asia Pacific, where product launches are expected to come in at the top.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Internal Team Meeting/Training	\$553.85	\$554.12	\$662.37	\$710.87
Product Launch (Internal/External)	\$818.38	\$793.48	\$844.44	\$873.89
Conference/Tradeshow	\$856.56	\$826.92	\$851.12	\$784.78
Senior Leadership Meeting/Board Meeting	\$789.06	\$760.31	\$734.54	\$846.49
Client/Customer Advisory Board	\$714.29	\$669.54	\$676.32	\$767.86
Incentive/Special Event	\$880.95	\$880.68	\$855.26	\$836.36
Small/Simple Meetings	\$450.00	\$427.08	\$502.58	\$565.32

[그림 5] 지역별 국제회의의 참가자 1인 · 1박당 소요 비용

2) 글로벌 업계 트렌드(Global Trends)

■ 재택근무(원격근무) 트렌드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택근무(또는 원격근무)를 실시한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인해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원격근무)를 혼용하여 운영하는 회사는 약 40%, 전면 재택근무(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Workforce Location

Percent of respondents

Half of survey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ir offices were fully open. North American respondents reported the highest percentage of completely remote workforces.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Fully open	52%	54%	50%	52%
Partially open (Hybrid)	33%	42%	44%	46%
Closed (Completely remote)	15%	4%	6%	2%

[그림 6] 지역별 사무실 근무(Open) · 원격근무(Remote) 실시 비율

■ 개최지 선정 요인

- 2022년 여행 규제 및 비자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회의업계에서는 근거리 및 국내 개최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들은 2023년 국경 해제 및 여행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국제회의의 해외 개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제회의의 해외 개최 시 국제회의 기획자들이 개최지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의 특정 기준(공항, 관련시설 인근 입지)을 만족하는 것', '참석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 '하이브리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이 지역을 불문하고 평균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에도 북미 및 남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큰 행사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개최지 선정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트렌드

- 지속가능성은 코로나19 이후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중요 고려 대상으로 여겨져왔으며, 2022년 GBTA(글로벌 비즈니스 여행자 협회)가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도 90% 이상의 기관들이 국제회의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트렌드는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연말 실시한 설문에서 80% 이상의 기관들이 국제회의 개최를 계획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도 남미 지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기관들보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Sustainability

Eighty percent of respondents globally say their organization considers sustainability when planning meetings and events. Latin America and Asia Pacific lead the pack.

Percent of respondents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Yes	71%	78%	86%	86%
No	22%	13%	9%	13%
Don't know	7%	9%	6%	1%

[그림 7] 국제회의의 개최 시 지속가능성 고려 비율

- 한편 업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모든 지역에서 높은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방안은 ‘종이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절감 방침 도입’, ‘참가자 여행 거리가 짧은 개최지 선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이 사용을 줄이고 QR코드 및 전자 명패를 사용하는 방식은 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참가자 여행 거리를 고려하는 방안은 북미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Sustainability Impacts		Percent of respondents			
Planners say minimizing paper usage is the most impactful sustainable practice; one-quarter of North Americans said recommending locations with minimal travel and one-fifth of Europeans said booking suppliers with green policies and certification have the most impact.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Booking suppliers (air, hotel, ground transportation, F&B) with an active green policy or certificate in place	16%	21%	18%	18%	
Encouraging attendee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carpool, rideshare, walk when possible	10%	14%	9%	8%	
Recommending a location with minimal amounts of travel for attendees	25%	18%	11%	18%	
Applying energy-saving and waste reduction measures (separation of waste; LED lighting, recycling programs)	17%	21%	28%	14%	
Minimizing paper usage (e.g. by using mobile apps, QR codes, electronic gift cards etc.)	19%	13%	28%	33%	
Post event CO2 calculation	7%	5%	6%	9%	
Other: please specify	0%	1%	0%	0%	
Don't know	7%	5%	1%	0%	

[그림 8] 국제회의업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효과

■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트렌드

-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한데 묶어 이르는 말로,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계적인 트렌드로 꾸준히 주목받아온 용어이며, American Express Meetings & Events 측에서는 국제회의 산업에서 DEI 강화를 통해 참석자들의 경험 및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설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약 87%의 기관들이 DEI 트렌드를 그들의 국제회의 및 행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버추얼 참여 옵션 제공', '다양성/소수자 소유의 시설 및 서비스 활용', '접근성 강화(휠체어 친화 메뉴 및 활동' 등의 방안이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음

Incorporating Diversity and Inclusion

Percent of respondents

Using diverse and minority-owned suppliers is the number one way globally that organizations incorporate DE&I into their meeting programs; regionally, respondents in Europe say they provide an option to attend virtually, and respondents in Latin America say they focus on accessibility.

	NORTH AMERICA	EUROPE	LATIN AMERICA	ASIA PACIFIC
Providing an option to attend the meeting or event virtually	24%	39%	25%	28%
Focusing on accessibility (wheelchair-friendly venue and activities)	22%	28%	34%	22%
Building in alternative forms of communication (e.g., sign language, subtitles, translator, etc.)	14%	15%	33%	19%
Using diverse/minority-owned suppliers (hotel, F&B, DMC, ground transportation, audiovisual (AV)/production)	29%	24%	28%	37%
Choosing diverse/minority speakers, emcees, or entertainment	40%	21%	16%	30%
Within meeting or event content (topics and presentations)	16%	18%	22%	19%
Through a charitable giving element of the meeting or event	17%	17%	10%	18%
Including gender pronoun preferences in meeting registration sites and virtual/physical name badges (e.g., she/her, he/him/his, they/them etc.)	19%	18%	24%	20%
Other: please specify	0%	0%	0%	0%
Don't know	6%	4%	1%	0%

[그림 9] 국제회의업계의 DEI 강화 전략

3) 지역별 트렌드 - 아시아-태평양(Regional Trends - Asia Pacific)

■ 향후 활성화 전망

- 미래에 국제회의 업계가 얼마나 회복 및 발전할지를 묻는 질문(10점 척도)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들 중 74%는 8-10점의 높은 점수를 매기며 향후 업계 전망을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며, 향후 국제회의 산업의 직업 및 커리어로서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질문(5점 척도)에 대해서도 4-5점(Good-Excellent)으로 응답한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회의 산업이 회복 및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은 업계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면 행사 개최 비율 전망은 전체의 37% 수준으로 타 지역이 49-62%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은 대면 행사 참석자 수가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61%의 응답자들이 '1-2년 내 회복'이라고 응답했으며 35%의 응답자는 '3-5년 내 회복'이라고 응답하였음

■ 행사 예산 및 계획

- 202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 참석 시 참가자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2.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호텔 숙박비(2.5%) 및 항공기 요금(3.1%)으로 나타남
-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 기획자들은 '만일 대면 행사 추진 시 예산 10%를 삭감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현지 여행 스태프 비용', '행사장 외에서의 야간 이벤트 예산', '행사장 외의 선택활동'이 각각 1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예산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예산이 '10% 증가할 경우 대면 행사 추진 시 투자를 확대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 경험 개선(31%)', '기술 사용 확대(27%)'가 다른 활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으로 평가되었음

■ 지속가능성 및 DEI 트렌드 반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관들 중 86%의 기관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으며, 83%의 기관은 ‘현장에서 지속가능성 전략을 실시한 바 있음’이라고 응답하는 등 북미 및 유럽의 지속가능성 고려 비율(각 71%, 78%), 지속가능성 전략 실행 비율(각 70%,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한편 DEI 트렌드와 관련, 사업 추진 시 DEI를 고려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92%로 나타나면서 81~82%를 기록한 유럽 및 북미 지역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다양성 반영을 위해 어느 부문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식음료(3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지 수행사(25%)’, ‘시각화(Audiovisual) 장비(25%)’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 최고 인기 도시 TOP 5

- American Express가 보유한 고객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들 중 국제회의 및 행사 개최지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일본의 도쿄로 나타났으며, 2위는 일본의 오사카, 3위는 호주의 시드니, 4위는 대한민국의 서울, 5위는 대만의 타이베이로 나타남
- 본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중국의 특정 도시나 싱가포르 역시 순위권에 포함되어야만 했으나, 2021~2022년 해당 국가들이 강력한 입국규제 및 방역정책 등을 실시함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순위권에 들지 못하게 되었음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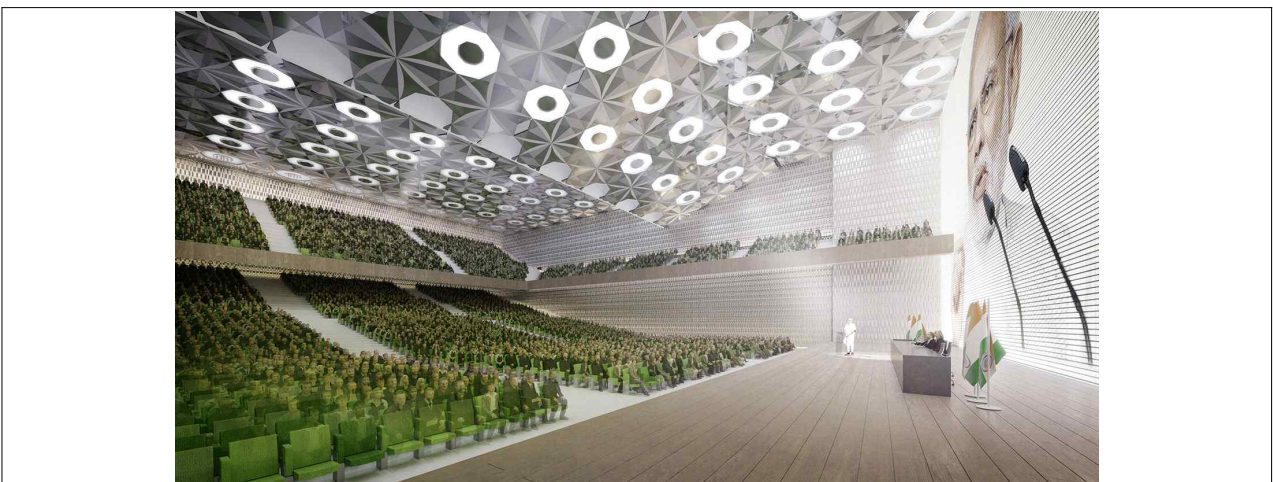
- **싱가포르: 2022 아시아방송콘텐츠박람회(ATF, Asia TV Forum & Market) 12월 7~9일 개최**
- 싱가포르, 아시아 지역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행사 중 하나인 아시아방송콘텐츠 박람회를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마리나베이샌즈에서 개최하였음
 - 아시아방송콘텐츠박람회는 2001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획·제작·배급사들이 자사 콘텐츠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시회로 방송업계 동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컨퍼런스와 발표회 등이 함께 진행됨
- 2022 아시아방송콘텐츠박람회에는 60개국에서 1,046개사가 참가, 약 5,7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시 규모가 매우 커 17개의 전시 홀을 가득 채웠고, 3억 3,700만 달러(한화 약 4,200억 원) 상당의 수출상담 및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에 더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자국 시장 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발표회, 아시아 지역 업계 전문가들이 틱톡 등의 SNS 콘텐츠 및 다양한 트렌드에 대해 논하는 컨퍼런스, 콘텐츠 어워드 시상식 등 부대행사가 3일 동안 총 41건 진행되었으며, 107명의 연사 및 토론 패널 등이 참석하였음
- 한편 주최측인 싱가포르 RX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바이어들 중 92%의 응답자가 아시아방송콘텐츠박람회를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박람회에 참석한 잠재적 파트너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98%를 기록하였고, 박람회에서 맺어진 계약 및 협업 중 70% 가량이 12개월 내에 추진완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10] 2022 아시아방송콘텐츠박람회 로고

■ 인도: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개설 검토

- 인도, 2023년 G20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연간 200-300여 건의 국제회의를 자국 내에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국내 MICE 인프라 및 업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Meet in India' 정책 브랜드 운영에 쓰일 MICE 기금 개설을 검토
 - 해당 기금 조성은 민간업계에서 MICE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청했던 바 있으며, 기금 조성 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자금은 인도 관광부(Tourism Ministry)의 해외 마케팅 예산에서 끌어올 예정
- 앞서 인도 관광부는 2022년 4월 MICE 업계 지원정책(India MICE Advantage)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정책내용 중 국제 MICE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성공할 시 준비 및 개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챔피언 부문(Champions Sector)'을 기반으로 기금을 운영할 전망이며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여 자국내 MICE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
-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 인도 관광부는 2023년 4월 인도의 MICE 업계를 홍보하기 위해 '제1회 iMICE India'를 벵갈루루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전 세계 1,000여 명 이상의 MICE 업계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B2B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 G20 소속 국가들을 초대하여 관광 MICE 산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또한 인도 관광부는 iMICE의 홍보 및 준비를 위해 민간업계와 협력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 로드쇼 다수를 참회하고, 이를 통해 인도의 MICE 산업 및 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해 나가겠다는 방침



[그림 11] 인도 국제 컨벤션&엑스포 센터(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 & Expo Centre)

■ 인도: 라자스탄,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 지원 정책 제시

- 인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이자 문화와 예술이 풍부해 인도 내 대표적 관광도시로 뽑히는 라자스탄주(Rajasthan)가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
- 라자스탄관광부(Rajasthan Tourism Department)는 MICE 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출범할 예정이며,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는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라자스탄의 지역색을 잘 담아낸 테마 컨퍼런스 등을 기획할 전망
- 이에 따라 라자스탄 MICE 활성화 추진조직은 20만 평방피트 이상의 면적을 지닌 컨벤션센터, 전시회장, 호텔과 같은 통합 MICE 설비를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인지도 면제, 국내외 트래블마터에서 라자스탄 MICE 연계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차등지급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한편 라자스탄 지역은 연평균 2천만 명에서 2천 5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눈 덮인 산, 해변 등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필요한 컨벤션센터, 값싼 교통수단, 질 좋은 호텔시설 및 통신시설, 쇼핑·오락거리 등을 보유하여 MICE 목적지로서의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음
 - 특히, 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는 지역 고유의 문화 축제, 대형 컨벤션센터인 스톤마트(Stone Mart), 자이푸르 보석 전시회(the Jaipur Jewellery Show) 등 적절한 하드웨어와 특색 있는 국제전시회 같은 소프트웨어를 고루 갖추고 있어 MICE 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



[그림 12] 라자스탄 대표 관광지인 ‘하와마할(Hawa Mahal)’

나. 미주 지역

■ 캐나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몬트리올에서 개최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몬트리올에서 19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공식 채택 발표
 - 생물다양성협약: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멸종위기종 증가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국가 간의 의무관계 및 권리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92년 체결된 UN 협약임
- 이번 당사국총회는 본래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10월 온라인으로 1부 회의를 진행한 뒤 본회의는 캐나다로 개최지를 이전하여 진행하였음
- 이번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23개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육지 및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30X30’ 목표 지정, 보전 노력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 2,000억 달러 조달 등이 있음
- 한편 이번 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일부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의 재정 기여 수준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자연보호를 위해 선진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전체적인 내용만을 두고 보면 환경단체 및 주요 외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지정된 23개 목표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그림 13]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현장

다. 구주 지역

■ 그리스: '그리스 국제회의 협의회(Greek Meeting Alliance)' 창설

- 아테네 회의 및 관광 бюро(The Athens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그리스 전문 국제회의 주최자 및 목적지 마케팅 전문가 협회(Hellenic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sers and Destination Event Specialists), 테살로니키 컨벤션büro(Thessaloniki Convention Bureau)는 그리스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리스 국제회의 협의회(Greek Meeting Alliance)'를 창설했다고 발표
- 새로 결성된 그리스 국제회의 협의회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협의회 설치를 통해 동맹 설립 MOU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협약식에는 IMEX 그룹의 레이 블룸(Ray Bloom) 회장과 선틸 고파니스(Senthil Gopinath) ICCA 대표가 참석하였음
- '그리스 회의 동맹 연합(Greek Meeting Alliance)'은 그리스 MICE 산업의 고품질 회의 개최와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그리스를 홍보하기 위해 창설됐으며 기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비공식 협력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기본적으로 그리스 국제회의 협의회는 주체 기관들은 코로나19 동안 'MICE 산업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조사', '가상 이벤트 개최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함께 진행하는 등 비공식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스 MICE 산업의 품질 향상 및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홍보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진행해온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방침
- 한편, ICCA의 2021년 국제회의 개최통계 순위에서 아테네는 유럽 6위,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이며, '아테네 회의 및 관광 бюро(The Athens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는 2022년 세계 관광 어워드(2022 World Tourism Awards)에서 유럽의 선도적인 도시관광 위원회로 인정 받은 경쟁력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협업을 통해 아테네의 MICE 실적이 향후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4] 그리스 국제회의 협의회 창설 기념 컨퍼런스

■ 독일: 코로나19 이후 독일 MICE 산업 전망 연구 결과 발표

- 유럽회의산업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the Meeting Industry, EITW)와 옥스퍼드 경제학 연구소(Oxford Economics)가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MICE 산업 변화를 분석함
- 이번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독일의 회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에너지 위기이며, 그 뒤를 이어 코로나19 유행, 직원 및 숙련된 인력의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분석됨
- 한편 독일의 회의 산업 전망에 대한 주최자와 공급자의 응답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ICE 산업의 예약률에 대해 살펴보자면 공급업체들은 2023년 3월부터 완전히 회복된 예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주최자들은 2023년 2월 말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약 상황을 보일 것이지만 3월부터는 다시 불안정한 예약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함
 - 또한 80%의 이벤트 공급자들은 지속가능성이 이벤트 개최와 실행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함
- 옥스퍼드 경제학 연구소(Oxford Economics)는 거시경제 전망을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가스배급, 공급망 리스크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일 회의와 컨퍼런스 시장의 단기 전망을 예측함
 - 옥스퍼드 경제학 연구소는 독일 MICE 업계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2023년까지 이벤트 방문객 수가 거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즈니스 이벤트와 이벤트 개최 형식(온라인/오프라인)에 모두 영향을 미쳐 2026년 이전까지 방문객 수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다만, 2022년 독일의 비즈니스 행사 참석과 관련한 여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팬데믹과 관련한 위험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
 - 독일의 전시 주최자 및 공급자 업체의 60%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향후 독일의 MICE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국내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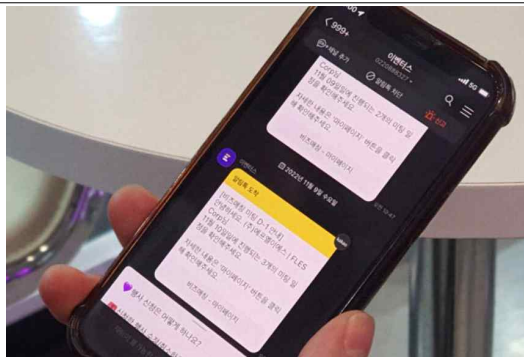
3. 국내시장 동향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 지원기준 완화하고 국내 MICE 시장 확대 추진

- 문체부-한국관광공사, '2023 MICE 부문 사업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기획 및 마케팅 2개 부문에 걸쳐 신사업 3종을 실시할 방침
- 우선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대형 위주였던 국제회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외국인 50명(3개국 이상) 포함 참가자 100명 이상의 소규모 행사부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MICE 육성지원, K-컨벤션 지원사업 및 융복합 국제행사 발굴 사업, 국제행사 유치 맞춤형 지원, 유니크베뉴 추가지정 등의 사업을 통해 국내 MICE 시장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우선 '스마트 MICE 육성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을 3단계(신규전환-고도화-글로벌)로 분류하고 기업당 3,000만 원~7,0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내용과 유사하나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 및 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목적인 비대면 행사 증가와 차별화되는 방향성 제시
- 토종 국제행사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해온 K-컨벤션 지원사업은 행사당 8,000만 원~1억 5,000만 원의 개최비를 지원하는 한편 K-팝, K-드라마, K-푸드, 이외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행사와 결합된 형태의 국제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융복합 국제회의 지원'을 신설, 2023년 4월 공모 개시 예정
- 한편 맞춤형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지원사업은 행사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은 학회 및 협·단체의 유치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별로 3개 내외, 총 12~15개의 중대형 행사 유치 건을 선정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을 5~6년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행사 특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세부 지표를 고도화하여 평가할 계획
- 이외에도 2022년 기준 총 39곳을 선정한 유니크베뉴를 총 50곳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유니크베뉴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유니크베뉴 모집을 진행할 예정

■ 한국마이스협회: 우수 MICE 기업 6개사 선정

- 한국마이스협회, 2022년 정부 지원을 통해 전사컨벤션 등 각종 행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MICE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 83개사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6개사를 DX 우수기업으로 선정
- 블루오리진은 행사 등록과 결제, 출입증 발급 및 실시간 출입관리까지 가능한 올인원 솔루션 ‘페어패스(Fairpass)’를 개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기존 플라스틱 비닐 소재 출입증을 종이로 대체했다는 특징이 있어 스마트국토엑스포, 한 스페인 비즈니스포럼 등 다수의 대형 행사에 도입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음
- 이즈피엠피의 경우 전사컨벤션 행사에서 최적의 비즈니스 미팅 상대를 찾아주는 AI 비즈매칭 솔루션을 통해 DX 고도화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미팅 상대를 추천할 때 기업 및 바이어의 기본 정보 외에도 포털사이트 뉴스 및 외부데이터를 자동 검색할 수 있어 매칭 정확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줌·웹엑스·미트·팀즈 등 다양한 화상 회의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관제솔루션 개발을 통해 특허를 발급받았다는 장점을 지님
- 한편 SH에듀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통역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한편 강연과 토론 내용을 자동으로 번역하여 자막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는 원격동시통역 플랫폼 RSI STAR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원격동시통역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실시간 채팅 및 통역 녹음 기능을 추가할 계획
- 이외에도 이벤터스는 각종 행사 운영 및 관리 프로필과 관련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함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웨이플러스 및 트레이드월드 역시 다양한 방면으로 MICE 산업 발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



[그림 15] 이벤터스 비즈매칭 알림 서비스

■ K-MICE, 2023년 역대 최초로 유럽 MICE 시장 진출

- 2023년 역대 최초로 국내 전시장 및 전시주최사의 자체 기획 행사가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 MICE 시장에 진출, 5월 카페쇼 및 코리아엑스포, 6월 인터배터리 유럽 등 개최 예정
- 우선 아시아 최대 커피 박람회인 ‘서울카페쇼’ 주최사인 엑스포럼은 2023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파리 카페쇼’ 및 ‘코리아엑스포’를 동시 개최할 예정으로, 2012년 카페쇼가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 이래 10년 만의 유럽 진출이자 민간 전시주최사가 유럽에서 여는 첫 전시회
 - 엑스포럼 측은 한국-EU 수교 60주년 및 2024년 파리올림픽에 맞추어 약 1만 1,000m² 부지에 400여개사 규모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코리아엑스포 병행을 통해 K-팝 및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행사를 가미하여 B2B와 B2C를 아우르는 행사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 한편 코엑스는 이차전지 전시회 ‘인터배터리’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2023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49개국 1,400여개사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스마터 E 유럽’과 동시 개최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세계 각국의 탈탄소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인터배터리 유럽을 교두보로 삼아 미주 지역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볼 방침이라고 언급
- 해외시장 진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과 재정이 안정적인 전시장들이 주도하는 추세로, 베트남 및 동남아에서 해외사업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다시 업계와 공동사업 형태로 해외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어 프랜차이즈화 등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중요 부문 중 하나임

2023년 국내 기업 주최 해외 전시회 일정								
구분			전시회	일정	장소			
4월		베트남 카페쇼	13~15일	호찌민	6월	베트남 메콩 의료의약·헬스케어 엑스포	8~11일	빈중
		스마트시티 아시아·스마트테크 베트남	13~15일	호찌민	7월	K-뷰티 엑스포·방콕 뷰티쇼	7월 중	방콕
		코리아 엑스포	13~15일	파리	8월	K-뷰티 엑스포 대만	18~21일	타이베이
5월		파리 카페쇼	13~15일	파리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14~17일	자카르타
		일렉트릭 에너지쇼	17~19일	하노이	9월	하노이 베이비·키즈페어	21~23일	하노이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1~4일	호찌민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1~23일	자카르타
6월		호찌민 베이비·키즈페어	1~4일	호찌민		베트남 캐리커·라이선싱 페어	9월 중	빈중
		인터배터리 유럽	14~16일	뮌헨	11월	베트남 리테일쇼·프랜차이즈쇼	2~4일	호찌민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	15~17일	호찌민		베트남 디지털·커피 엑스포	2~4일	호찌민
		베트남 환경·에너지산업전	28~30일	하노이				

[그림 16] 2023년 국내 기업 주최 해외 전시회 일정(출처: 이데일리)

■ 인천: 인천관광공사,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ISO 20121) 인증 취득

- 인천관광공사·경원재 앰배서더 인천·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 국제표준기구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ISO 20121)을 취득
 -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은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조직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으로, 대규모 인원과 자원이 투입되는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행사가 지닌 본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
- 인천관광공사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운영자이자 관광객 및 각종 행사 유치가 목적인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으로서 인증을 받았으며,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및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은 행사 메뉴 및 숙박·식음료 등 서비스 공급자로서 인증을 취득
- 국내에서는 2015년 롯데호텔과 대구컨벤션뷰로를 시작으로 2016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각각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인천관광공사와 인천 내 호텔·메뉴 등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서 유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업종 및 내용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 개최지 선정의 기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관광공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인천형 지속가능 MICE 운영기준을 마련해 단계별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해온 점이 인정받았다고 분석하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역 내 지속가능성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그림 17]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전경(출처: 이데일리)

■ 경기: 킨텍스,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제3전시장 건립사업 공사비 6,298억 원 확보

-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일산 킨텍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열고 미래 2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글로벌 마이스 포럼을 진행
 - 킨텍스는 국내 총 전시면적의 약 40% 가량을 점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으로 1998년 ‘아시아 무역 전시산업 중심지 육성계획’에 의거하여 건립계획을 추진, 2002년 ‘주식회사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이 설립되었음
-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킨텍스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았는데, 특히 세계 12위의 무역규모에도 코엑스를 제외하면 대형 전시시설이 없던 시기부터 2005년 킨텍스 개장 이후 점차 증가하는 가동률,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 확대 등 국내 전시산업 발전사에 킨텍스가 기여한 점들을 설명
- 또한 기념식에 참석한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공사비 1,844억 원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 6,298억 원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만 8,000㎡의 전시면적에 7만㎡를 추가하며 국내 MICE 산업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킨텍스는 2022년 11월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제3전시장과 관련하여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절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빠른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개관 일정을 서두를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 CJ 아레나 개관에 맞추어 킨텍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코트라 등과 협력하고 한류콘텐츠 및 MICE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계획



[그림 18] 킨텍스 창립 20주년 기념식(출처: 뉴시스)

■ 강원도: 강원 유니크베뉴 10곳 선정 / 강릉시 '웰니스 MICE 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 추진

- 강원도관광재단, 강원도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독특한 콘텐츠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원 유니크베뉴' 10곳을 선정
- 선정된 10곳은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 고성 DMZ 박물관, 속초 국립산악박물관, 춘천 남이섬 등으로, 해당 10개 유니크베뉴에 대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MICE 시장을 겨냥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2023년에는 선정된 유니크베뉴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연계 이용 시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
- 강원도관광재단, 이번 유니크베뉴 지정은 강원도 MICE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내 MICE 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하슬라 아트월드'가 입지한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세계 합창대회,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 개최를 중심으로 동북아 최고의 '웰니스 MICE 도시'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브랜드 강화를 추진할 방침
- 이를 위해 강릉 MICE 얼라이언스를 해마다 확대 모집하고 MICE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익 창출을 위한 회원사 간 공동사업 확대, 방문객 경제의 선순환 구조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수용태세 정비, 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
-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강릉시의 MICE 산업 전담기구로 지정되어 2022년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광박람회에 참여해 중동 시장에 강릉 MICE 산업을 알리고 영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20여개사의 유럽 바이어를 확보한 바 있음



[그림 19]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전경(출처: 스포츠경향)

■ 대구: 엑스코, MICE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 지역 MICE 산업 인재 양성 추진

- 대구 엑스코, 대구시 국제통상과 및 13곳의 지역 MICE 기업 대표 등 관내 MICE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 현장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MICE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
- 엑스코는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공인기관으로, 이를 근거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새로이 수립하고 안전한 전시컨벤션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지역 MICE 업계 안전점검·시설물 관리, 연말 행사 진행 안전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 협력체계를 공고화
- 또한 지역 MICE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전시 주최지원 제도 확대, 전시장 및 회의실 내 냉·난방 조절 개선 등 행사 주최 관련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엑스코는 지역과 업계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행사 개발 컨설팅 및 행사홍보 지원, 지역 업체 우선계약 등 다양한 지원정책의 뒤를 이을 상생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
- 한편 엑스코는 MICE 업계뿐만 아니라 MICE 관련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내 산업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명대 산학협력단, 경북대 링크사업단 등 인근 지역 대학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분야 등 상호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MICE 산업 관련 교육 및 지원체계 확립, MICE 신규사업 발굴 등 지역 대학생들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
- 특히 지역 대학생 대상 MICE 기획·마케팅 노하우, MICE 아이디어 공모전,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신규 전시회의 연구 및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며, 향후 지역 내학 내 MICE 관련 학과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MICE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그림 20] 엑스코-계명대·경북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출처: 뉴시스)